

아이야, 너는 우리의 희망이다

 경인일보

공지영 기자

‘변화’가 필요해

2021
기자의 세상보기



경인일보 유튜브 '핫터뷰' 보호종료아동 미니다큐의 한 장면

기자가 되겠다고 무작정 언론고시에 뛰어들어 헤매던 시절, 대학생 인턴기자를 하며 알게 된 현직 기자선배와 어떤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다. 영화 제목은 ‘모비딕’. 사회부 기자들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추적하는, 지금 생각하면 다소 뻔한 드라마였는데 기자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때의 나는 그 영화를 꽤 흥미롭게 보았던 것 같다. 기자가 되면 내 인생의 장르가 ‘추적스릴러’로 바뀔 것 같은, 상상만 해도 짜릿한(?) 흥분에

영화스토리나 현실을 빗대며 한참 신나게 떠들었는데 그저 웃기만 하던 선배가 무심히 한마디 던졌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꿈에서 고래 등 만지는 장면은 좀 현실적이더라.”

똥판지같은 선배의 말을 그때의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고래의 등장이 던진 은유를 고민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 날의 대화도 한동안 잊고 살았다.



2014년 7월, 고시원 단칸방에서 엄마와 두 딸이 더운 여름을 나고 있었다. 어른 둘이 앉으면 꼭 차는 작은 공간에서 딸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엄마는 나에게 '우리 딸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영화가 개봉한 2011년 6월, 나는 공교롭게도 지금의 언론사에 수습기자로 입사했다. 고달팠던 수습을 지나 '정식기자'가 되고나니, 고래의 등을 만진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던 선배의 말뜻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영화 속에서 기자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흰 고래 마크'를 발견하고 난 후 고래의 등을 만지는 꿈을 꾀다. 죽을힘을 다해 사건을 추적했고 이제 곧 음모의 실체를 밝히게 될 줄 알았는데 고작 그의 손에 닿은 것은 고래의 등. 그것도 아주 작은 일부. 아무리 노력해도 고래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밥벌이

기자의 현실이라는 선배의 자조를 철없던 시절의 난 이해하지 못했다. 4년차 사회부 기자가 됐을 무렵에야 개운치 못한 뒷맛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깨달았다.

나름대로 지역 사회의 부조리를 들춰 고발한다고 했지만, 세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 해는 세상이 뒤집힐 만큼 큰 사건사고가 유독 많았고 무수히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만' 일한 결과를 만들었다. 남보다 조금 먼저 사실을 보도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설사 어떤 것이 바뀐다 해도 개선된 듯 보였던 모습마저도 단편에 불과하다는 걸 '반복학습'



쓰레기 더미에 앉아 멍하니 나를 바라보던 현이네 새집이 완공되던 날, 현이는 낯선 어른들 속에서도 새롭게 지어진 집 앞에서 신이 나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다.

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정신없이 열심히만 일하는, 요상한(?) 슬럼프를 겪던 그때, 우연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출입처로 배정받았다. 그리고 초록우산과의 만남은 밥벌이 기자의 삶에 한줄기 빛이 됐다.

첫 번째 인연

솔직히 몰랐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의 삶이 이다지도 고단한 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처음 만난 건 2014년. 그때 내가 한 일은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

동 사례를 취재해 보도하는 일이었다.

사회복지사를 따라간 곳은 화성에서도 한참을 들어가 구불구불한 흙길에 이어진 아주 후미진 곳이었다. 한눈에 봐도 무척 오래된 흙집이었다. 요즘에도 흙을 쌓아 집을 짓는구나 싶었다.

오래된 집 안은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했다.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 방 한가운데 동산(?)을 이뤘는데, 그곳에서 만난 현이(가명)는 쓰레기더미에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먹다 남은 음식물도 버리지 않아 심한 악취가 났다.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지만 애써 표정을 고쳤다. 쓰레기더미와 악취 속에 사는 현이를 보니 웬

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다.

이 지경이 되도록 부모는 왜 집을 방치했을까. 순간 화가 치밀었다.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엄마는 저장강박증이에요”라고 속삭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 병간호와 더불어 세식구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엄마의 사정을 이어 들었다. ‘그엄마 참 한심하다’ 여겼던 내 마음이 오히려 한심하게 느껴졌다.

현이를 만난 후엔 은지를 만났다. 환하게 웃던 은지 얼굴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선천성 기형이라는 은지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솔직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랍장을 붙잡고 힘겹게 일어서는 은지의 두 다리, 유독 기형이 심한 얼굴... 나는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다. 도무지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말문도 막혔다. 사연은 더욱 기가 막혔다. 난임 끝에 어렵게 은지를 가졌는데, 임신 7개월까지 엄마는 은지의 병을 알지 못했다. 귀한 아이였기에 매일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던 엄마는 문득 맘카페에서 공유되던 7개월짜리 다른 아이의 초음파 사진과 은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병원에 물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만 했다. 엄마의 직감이었을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자 엄마는 다른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지를 살리기 위해 좋다는 병원은 다 쫓아다녔지만 이미 치료시기를

사교육 빈부격차 하늘과 땅 “학원없이 학교 공부 벅차요”

**방학이 더 괴로운
아이들 '교육빈곤'**

> < 도태되는 소외계층 학생들

동계방학이 지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를 보지 못했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가 교육의 주요 화두인 대한민국에서 교육 불평등은 불연연한 과제다. OECD가 발표한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 OECD 국가의 하위 25% 학생들의 상위 25% 학생보다 방과 후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평균인데, 유독 한국은 상위 25% 학생들이 방과 후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띄웠다. 특히 한국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방과 후 공부시간이 10시간 가량 차이나는데, 그 10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답은 누구나 알고 있을 듯, 학원이다.

고소득층 83.9~저소득층 43.1% 중학교 전교 1등 고교 가서 수학 “시험 난이도 혼자 감당 어려워” 초특우산재단 지원 부족한 현실

어릴 적부터, 평범한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주장은 더욱 고집한다. 초특우산재단(재단이사: 박승남)을 지원하는 ‘꿈그림’ 사업을 통해 고교생들을 지원받아 학원생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양상을 위해 양자별 입구(재단이사: 박승남)를 찾아 보았다. 또 다른 양상을 위해 양자별 입구(재단이사: 박승남)를 찾아 보았다.

어릴 적부터, 평범한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주장은 더욱 고집한다. 초특우산재단(재단이사: 박승남)을 지원하는 ‘꿈그림’ 사업을 통해 고교생들을 지원받아 학원생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양상을 위해 양자별 입구(재단이사: 박승남)를 찾아 보았다.

어릴 적부터, 평범한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주장은 더욱 고집한다. 초특우산재단(재단이사: 박승남)을 지원하는 ‘꿈그림’ 사업을 통해 고교생들을 지원받아 학원생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양상을 위해 양자별 입구(재단이사: 박승남)를 찾아 보았다.

더운 여름, 동네 복지관에 나와 공부하던 주영이 이야기를 담은 경인일보 신문 지면(2019년 8월5일자)

놓쳤을 때였고, 아이는 결국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울음을 참느라 침을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모른다. 그런데 엄마는 울지 않고 담담했다.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기만 했던 은지를 위해 엄마아빠는 백방으로 뛰었다. 덕분에 내가 만난 은지는 서랍장을 붙잡고라도 기어코 일어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작성하는 내내 먹먹했던 마음이 기억난다. 아무 표정 없이, 멍한 눈으로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더미에 기대 TV를 보던 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로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던 은지



신문과 온라인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기획기사를 게재하며, 인터뷰에 응했던 보호종료아동들과 함께 미니다큐멘터리를 기획해 촬영했다. 수원 방화초등학교에서 촬영하던 모습.

의 귀여운 얼굴이 생각나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단 한사람이라도 기사를 읽고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사를 썼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에 놀랐다. 이름 모를 독자들이 회사로, 메일로, 재단으로 연락해 아이들의 후원을 문의했다. 은지 사연을 보고는 여러 방송국에서 방송에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현이네는 기사를 보고 연락해온 지역의 건축종사자들이 하나 둘 모여 새로운 집을 지어주었다. 현이 엄마가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맙

다고 손을 잡았다.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큰 그릇의 기자는 못 되어도, 적어도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건네줄 수 있겠구나, 새삼 내가 기자가 된 것이 감사했다.

두 번째 인연

안타깝게도(?)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회부를 떠나 문화부에 몸담게 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사회부 출입처였고, ‘출입처 문화’가 확실한 한국 기자 세계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순 없었다. 잠시 ‘개인 기부자’로만 인연을 이어오다 2019년 다시 사회부로 돌아왔다. 제법 짬(?)

이 차 컴백하니, 덩어리가 큰 출입처만 주어졌다. 조용히 부장을 찾아갔다. “초록우산을 나에게 달라. 내가 매우 좋아하는 출입처”라고 슬쩍 말을 건넸고, 부장도 “옳다, 너 가져라” 해주었다. 잠시 느슨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팽팽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한 여름, 주영(가명)이를 만났다. 주영이는 엄마와 단둘이 산다고 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주영이는 공부를 잘했다. 엄마도 주영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내가 모녀를 만났을 땐 머리로 다쳐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엄마와 주영이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했다. 주영이가 살고 있던 동네는 ‘분당’이었다. 그래도 주영이는 중학교까지 학원도 다니지 않고 전교1등을 놓치지 않았다. EBS 인터넷 강의와 학교수업에 집중해 그 쟁쟁하다는 분당에서 1등을 도맡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첫 모의고사를 보고 주영이는 주저앉아 울었다. 노력은 중학생 때보다 배 이상 더했는데 성적이 말도 못하게 떨어진 것이다. 충격받은 주영이에게 반 친구가 이야기했다. “(우리는)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죽보를 확보해서 예상문제를 뽑아준다”는 말이었는데 시험은 그 예상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원비는 한 과목당 40만원이 넘는다. 고작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비에

서 40만원은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주영이가 다니던 동네 복지관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됐는데, 난관은 여기서도 봉착했다. 기부자들이 ‘학원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학원을 다니냐는 소리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법칙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늘 우리는 누군가의 ‘가난’에 주홍글씨를 새기려 할까.

마음이 옥했다. 주홍글씨를 지우고 싶었다. 주영이 사연을 소개해 후원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주영이들이 마음놓고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도 주영이의 미래에 한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비 지원실태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로 적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취약계층 아동 학습비 지원 체계도 ‘학원비’는 지원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현실에선 틀린 정책이었다. 이미 우리 교육이 사교육에 점령됐다는 사실을 공교육마저 인정하는 마당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출발선조차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건 부당한 ‘사실’이다.

이 취재를 계기로 그저 위기아동을 소개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서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된 기획취재를 꾸준

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 기뻐다.

세 번째 인연, 그리고 계속될 인연

그렇게 지난해에는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약 6개월짜리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점점 판이 커지는 것 같아 ‘아이들이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없으면 어쩌나’ 내심 마음을 졸였다. 보호종료아동은 사실 아동이 아니다. 만 18세, 우리 나이론 스무살 청년이 된, 한때 보호아동이었던 청년들이다. 스무살이 되면 국가와 사회가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일방적인 보호종료를 선언한다. 물론 대학진학 등의 이유로 보호연장을 할 수 있지만,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열악한 사정의 친구들도 많다.

이들을 만나며 나의 스무살을 떠올렸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주는 도시락을 챙겨 재수학원에 다니며 용돈으로 생활하던 스무살이 생각났다. 친척집에 얹혀 살며 밤마다 친척식구들이 잠들 때까지 집 근처를 배회했고 지금도 ‘나가’라는 말이 제일 무섭다는 아이, 다리를 다쳤지만 치료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아이,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부양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의 스무살이 오버랩 되며 나만 잘 지냈다는 미안함, 비빌 언덕이 돼준 부모님

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마음이 어지러웠다.

2차례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달아 쏟아냈다. 보호아동, 보호연장,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 된 지금까지 아이들이 견뎌야 했던 삶의 ‘고됨’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기사가 나가고 아이들은 너무 통쾌하다고 좋아했는데, 어른들은 몹시 불편해했다. 다행인 건 그 불편함을 불쾌해하지 않고 아이들의 목소리로 반영해 개선책을 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도 기획해 촬영했고 경기도와 함께 보호종료아동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덕분에 아직 부족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지원책도 전보다 강화됐다. 무엇보다 ‘엄마아빠 없는 불쌍한 아이’라는 시선으로만 아이들을 가두는 사회의 무관심도 조금은 개선됐다.

올해는 1년에 걸친, 또 다른 장기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써야 할까 고민하느라 연초가 되면 마음이 설렌다. 물론 아직은 고래 꼬리밖에 만지지 못했다는 부담도 크다. 그래도 더듬더듬, 하나하나 만지다보면, 먼 훗날 환하게 웃고 있는 고래 얼굴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바쁜 엄마라 미안한 마음뿐인 내 딸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돼 있지 않을까. 🐋